

CANKS

중앙아시아 한국학네트워크

중앙아시아 한국학교수협의회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한국학센터

발행일: 2017.01.20



중앙아시아 한국학교수협의회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

2016년 6월 24일(금)부터 25일(토)까지 2일간 제 4회 중앙아시아 한국학 학술대회 및 2016 중앙아시아 한국학교수협의회 정기총회가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개최되었다. 학술대회에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한국의 4개국 21개 대학/기관에서 60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중앙아 한교협
(관련기사 p.2)

제 4회 중앙아시아 한국학 학술대회 및 2016 중앙아 한교협 정기총회

키르기스스탄
(관련기사 pp.3-4)

하계 월드프렌즈 PAS 청년 봉사단, 희망의 운동화 전달식, 대구과학대 하계봉사활동, 한양여대 하계봉사활동

타지키스탄
(관련기사 pp.5-6)

2016년 한국의 날, 제 7회 계명대 한국어백일장 및 시화대회, 한국영화 페스티벌

카자흐스탄
(관련기사 pp.6-8)

제 8회 중앙아시아 성공한 글백일장, 해외학자초청 특강, 주알마티 총영사 특강, 570 돌 한글날기념 한국학포럼 외

* 이 뉴스레터는 카자흐스탄 한국학네트워크 홈페이지 (<http://canks.asia>)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중앙아시아 인명 지명은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Center for Korean Studies,
KazUIR&WL
Tole bi 84, Almaty, Kazakhstan
Homepage: <http://canks.asia>
E-mail: cks@ablaikhan.kz

중앙아 한교협

제 4 회 중앙아시아 한국학학술대회

2016년 6월 24일(월)부터 25일(토)까지 2일간 중앙아시아 한국학학술대회 및 중앙아시아 한국학교수협의회(이하 중앙아 한교협) 정기총회가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개최되었다.

올해 4 회째를 맞이한 이번 학술대회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한국의 4 개국 21 개 대학 및 기관에서 한국학 관계자 60 여 명이 참석하였다. 학술대회는 중앙아시아 한국학교수협의회에서 주최하고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한국학센터에서 주관하였으며,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주알마티 총영사관, 알마티 한국교육원이 후원하였다.

1 일차 학술대회는 백태현 회장(중앙아 한교협)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진승민 총영사(주알마티 총영사)의 환영사, 문성기 소장(한국국제교류재단 모스크바사무소)과 정순우 단장(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진흥사업단)의 축사가 이어졌다. 발표에서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한국 등 4 개국 25 명의 한국학 논문 24 편이 소개되었다. “중앙아시아 한류와 한국학”을 주제로 중앙아시아 한류의 현황과 문제점을 한국학의 측면에서 검토하고 한류와 한국학이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2 일차에는 찾아가는 한국학콘서트의 일환으로 박환 교수(수원대)의 특강 “고려인의 위대한 항일여정과 대한민국”이 진행되었다. 이어서 중앙아시아 한국학기관의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중앙아 한교협 정기총회가 진행되었다. 총회에서는 먼저 지금까지의 성과를 소개하였다. 중앙아 한교협은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한국학센터와 공동으로 학술지 <중앙아시아 한국학교육>(연 1 회)과 소식지 <중앙아시아 한국학네트워크>(연 2 회)를 발행하고 있다. 이 밖에도 인터넷홈페이지(<http://canks.asia>)를 개설하고 각국의 한국학 행사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어서 임기 2년의 제 2 대 회장으로 백태현 교수(비슈케크 인문대)를 선출하였다. 차기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는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에서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모든 일정을 마쳤다.



키르기스스탄

하계월드프렌즈 PAS 청년봉사단

2016년 7월 2일부터 22일까지 비슈케크 인문대에서 한국의 한남대 학생들로 구성된 키르기스스탄 청년봉사단 팀이 현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키르기스스탄팀은 정구섭 교수(한국국제대)를 단장으로 하여 이용기 팀장(한남대 국제부)이 한남대 학생 25명을 인솔하였다. 봉사활동의 목적은 한남대 학생들이 방학 중 키르기스스탄의 현지 대학생들에게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가르침으로써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높이고, 그들에게 러시아어와 키르기스스탄의 문화를 배움으로써 상호이해와 국제 친선을 도모하는 데에 있다.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로 구성된 교육 및 봉사 프로그램은 키르기스스탄 대학생과 쉬콜라 학생들의 큰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되었다. 한국어교육(초급, 중급A, 중급B), 한국 전통문화 소개 및 그룹별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그리고 봉사 기간이 끝날 무렵에 마련된 한국의 날 행사(한국음식축제, 합동공연)로 나누어 진행이 되었다. 본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남대 학생들과 비슈케크 인문대 학생들, 그리고 기타 쉬콜라 학생들은 양국의 언어와 문화를 배우고 익힐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희망의 운동화' 전달식

2016년 11월 3일(목) 비슈케크 인문대 대강당에서 한국의 서울시립청소년문화교류센터가 키르기스스탄 사회발전 및 노동부에 전달하는 3,600 켤레의 '희망의 운동화 전달식'이 거행되었다. 전달식을 위해 서울시립청소년문화교류센터의 정책역을 맡고 있는 대산문화재단의 곽효환 상무, 문화사업팀 조은옥 팀장, 김성철 사업담당자가 키르기스스탄을 방문하였다. 당일 전달식에는 키르기스스탄 사회발전 및 노동부 제크세노프 장관, 국제교류부장 등 관계자, 비슈케크 인문대 무사예프 총장, 비슈케크 소재 각급 학교 학생 및 고아원 학생 등 600여 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본 키르기스스탄 '희망의 운동화' 전달식이 거행되기까지 약 1년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였는데, 사업 연결 초기부터 성사되기까지 비슈케크 인문대 백태현 교수와 키르기스-한국대학의 미나라 셰리쿨로바 교수의 가교 역할이 있었다.



올해로 10 주년을 맞이한 '희망의 운동화' 전달사업은 참가자가 직접 운동화 위에 희망과 평화의 메시지를 담아 해외 청소년들에게 전달하는 UN 산하의 전세계적 나눔운동이다. 한국에서는 서울시립청소년문화교류센터를 통해 2007년부터 실시되어 현재까지 우간다,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네팔, 라오스, 미얀마, 몽골 등 총 9개국 청소년들에게 총 61,143 켤레의 운동화를 희망과 우정을 함께 실어 전달하였고, 2016년에는 키르기스스탄에 3,600 켤레의 운동화를 전달하게 되었다. 전달된 운동화는 키르기스스탄 사회발전 및 노동부 주관하에 키르기스스탄 전역의 고아원, 장애인센터, 정신지체장애인보호센터 등에 전달되었다.



키르기스스탄

대구과학대 하계봉사활동

제 20기 하계 월드프렌즈 키르기스스탄 PAS(태평양아시아협회) 청년봉사단이 2016년 6월 30일부터 7월 20일까지 키르기스-한국대학(KKC)에서 키르기스-한국대학 및 쉬콜라 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봉사 활동을 진행하였다. 이번에 파견된 봉사단은 송기선 단장, 인솔자 김영식 대구과학대 학생복지처장, 부단장 추동균 대구과학대 교수, 남학생 8명, 여학생 22명 등 총 33명으로 구성된 대구과학대 단일팀이었다.

봉사팀의 활동은 크게 교육봉사, 문화교류, 그리고 노력봉사로 구성되었다. 교육봉사는 한국어 초급과 중급 교육이 매일 1시간 30분씩 진행이 되었는데, 참가 학생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문화 교류는 참가 학생을 대상으로 한 태권도, 전통놀이, K-POP, 율동, 미술, 과학 등 동아리 활동을 중심으로 진행이 되었다. 그리고 토요일과 일요일 등 주로 휴식 시간을 이용해 진행된 봉사단원들의 노력봉사를 통해 키르기스-한국대학 교정에 훈민정음 해례본 서문을 그렸고, 담벽 공간을 이용해 아름다운 벽화를 그리는 재치를 발휘하였다. 봉사 기간 마지막 날 봉사단원과 참가 학생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한국음식 페스티벌과 종합 공연을 통해 서로의 우의를 돈독히 다졌고, 특별한 아쉬움을 눈물로 달래기도 하였다.



한양여대 하계봉사활동

제 11기 한양여대 키르기스스탄 해외봉사단이 2016년 7월 11일(월)부터 23일(토)까지 키르기스-한국대학에서 키르기스-한국대학 및 쉬콜라 학생을 대상으로 봉사 활동을 진행하였다. 이번에 파견된 봉사단원은 한양여대 김의정 단장(학생복지처장), 신영준 교수, 조순덕 학생복지처 차장과 학생 단원 20명 등 총 23명으로 구성되었다.

봉사단의 프로그램은 교육봉사, 공연봉사, 노력봉사로 구성되었는데, 봉사단은 이를 위해서 한국에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으며 충실히 준비를 하였다고 한다. 교육봉사 프로그램은 한양여대의 특성을 제대로 살린 리본공예와 선물포장 교육, 그리고 천연염색 교육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는데, 참가 학생들의 큰 호응과 관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봉사단은 교육봉사 외에도 봉사기간 동안 비슈케크 소재 두 곳의 고아원을 방문하여 준비한 부채춤, 소고춤 등 한국전통무용과 방송댄스 등 위문공연을 펼쳤고, 또 선물을 원아들에게 전달하기도 하였다. 이번 공연팀의 실력은 매우 수준급이어서 공연을 펼칠 때마다 많은 관중의 환호를 받는 문화사절단의 역할도 충분히 하였다. 한편, 교육봉사를 통해 참여한 학생들과 같이 제작한 리본, 선물박스, 천연염색을 한 티셔츠, 손수건, 스카프 등은 바자회를 열어 판매를 하였고, 수익금은 불우학생의 장학금으로 전달하였다. 한양여대 봉사단은 짧은 기간이었지만 다양한 활동을 통해 키르기스스탄 학생들에게 진정한 봉사의 의미를 깨닫게 하는 실천의 장을 몸소 펼쳐 보였다.



타지키스탄

2016년 한국의 날

2016년 6월 29일 타지키스탄 로후티 극장에서 한국의 날 행사가 진행되었다. 주타지키스탄 대한민국대사관 엄기영 대사, 타지키스탄 외교부 조히디 니조미딘 제1차관, 타지크 국립외대 라자보프 사이드네몬 부총장, 마흐마드 조노프 올림존 부총장, 오디나예프 살로미딘 부총장, 쿠도이도도프 아잠 부총장, 카유모프 아브둘마인 학장 등, 다수의 귀빈이 한국의 날을 축하하기 위해 참석했다.

오후 2시부터 페이스페인팅, 포토존, 고리던지기, 뽀지씨름, 비석치기, 한국어 이름쓰기 총 6개의 부스를 운영하였다. 약 200명의 참가자들은 다양한 한국문화를 체험하였다. 동시에 한국의 전통 놀이, 사물놀이, 의복, 자연, 문화, 음식 등을 보여주는 사진전도 운영하며 여러 가지 볼거리를 제공하였다. 오후 4시부터는 한국어학과 학생들이 한국의 날을 위해 준비한 사물놀이, 탈춤, 부채춤, 플래시몹, K-POP, K-DANCE 공연, 시낭송, 한복패션쇼, 아리랑 합창, 등 다양한 팀의 한국문화공연을 볼 수 있었다.

특히 타지크 국립외대 학생들이 조선시대의 결혼식을 배경으로 한 한복패션쇼를 선보였다. 왕과 왕비를 시작으로 서당, 엿장수, 청춘남녀, 함, 신랑신부 등 한국만의 다양한 스타일을 내외빈들에게 보여주어 큰 갈채를 받았다.

이번 '한국의 날' 행사를 통해 현재와 과거를 아우르는 다양하고 새로운 한국을 보여준 소중한 시간이었다. 앞으로도 타지키스탄의 여러 매체에 다양한 행사를 통해 한국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지속적으로 많아지길 기대해본다.



한국영화 페스티벌

2016년 11월 30일(수) 세종학당재단에서 주최하고 두산베 1·2 세종학당이 주관한 '한국영화 페스티벌'이 타지크 국립외대 대강당에서 개최되었다.

이 날 행사에는 주타지키스탄 대한민국대사관 백상민 행정관과 타지크 국립외대 무함마드조노프 올림존 부총장이 참석하여 축하와 격려의 메시지를 해주었다.

한국영화 페스티벌은 <말아톤>이라는 영화를 먼저 상영한 뒤, 수강생들이 <나도 영화배우다>라는 주제로 직접 영화의 결말을 제작하고, 결말을 상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두산베 1·2 세종학당 한국문화 행사에는 총 120여명의 수강생들이 참가하였고, 각 팀마다 창의적인 방법으로 영화를 통해 한국 문화와 정서를 이해하고, 결말을 창의적으로 제작했으며, 수강생들끼리 직접 연기, 감독, 제작, 영상 등을 맡으며 더 친밀해지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또한, 수강생들은 이번 행사를 통해 좀더 적극적이고 재미있게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배울 수 있었고, 한국어 능력과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력도 향상되었다.

시상식에서는 최우수작품상 3팀과 최우수연기상 3명이 수상했다. 이번 행사를 통해 학생들에게 한국 영화의 우수성과,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한국어로 연기까지 해보는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타지키스탄

제 7 회 한국어백일장 및 시화대회

2016년 10월 08일(토) 타지크 국립외대 대강당에서 열린 제 7 회 계명대 한국어백일장 및 시화대회는 두산베 1-2 세종학당이 주최하고 주관한 행사이다. 주타지키스탄 대한민국대사관 백상민 행정관과 타지크 국립외대 라자보프 사이드네몬 부총장, 카유모프 압둘마인 동양어학부장이 참석해서 학생들에게 축하와 격려를 해주었다. 타지키스탄 한인회 박용호, 박인규, 정경숙, 황현덕 회원과 타지키스탄 국립사범대 박예정 선생이 심사의원으로 수고하였다.

백일장 및 시화대회를 통해 학생들의 글쓰기 능력, 독창성 등 한국어 능력이 향상되었고, 수상자들에게는 계명대 한국어학당에서 전액 무료로 수학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카자흐스탄

제 8 회 중앙아시아 성균한글백일장

2016년 11월 28일 제 8 회 중앙아시아 성균한글백일장이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대회에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의 4 개국 8 개 도시 24 개 대학에서 38 명의 대학생들이 참가하였다.

올해의 백일장 주제는 ‘다름’이었다. 수상자에게는 2년 동안 성균관대 대학원 등록금이 전액 면제되는 등 특전이 주어진다. 심사결과 1등은 조 엘레나(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2등은 우스마노바 자미라(카자흐 국립대), 3등은 베이센베크바 아이잔(키르기스-한국대학)이 차지했고, 특별상이 무하멧칸 살타나트(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에게 주어졌다.

이석균 국제처장(성균관대)은 “외국 학생들이 한국어를 단순히 따라 하는 수준을 넘어 자신의 언어로 여기고 세밀하게 표현할 줄 아는 능력을 갖춰나가고 있다”며 “일부 참가자는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러브콜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카자흐스탄

국제공동학술대회

2016년 12월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 동안 카자흐 국립대 동방학부에서 “중앙아시아의 한국학과 한국의 디지털인문학”이라는 주제로 국제공동학술회의가 개최되었다. 카자흐 국립대와 한국외대 양측은 2017년에도 학술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으며, 향후 양교 협력과 학술교류에 크게 기여해 나갈 것으로 여겨진다.



해외학자초청 특강

카자흐 국립대 한국학과는 2016년 12월 해외학자초청 특강을 실시하였다. 12월 6일부터 19일까지 안영미 교수(인천대)가 한국어교수법, 12월 23일부터 30일까지 안상경 교수(충북대)가 문학과 전통에 대하여 강의하였다. 한국어 교원을 대상으로 한 특강은 유익하고 생생한 정보가 많이 전달되었고, 자격향상과 정보교류의 장이 되었다.



장학금 수여식

2016년 8월 31일 카자흐 국립대에서 산학협동재단 장학금수여식이 진행되었다. 한국학과 재학생 3명이 각 1천불씩 장학금을 받았다. 산학협동재단의 장학금지원에 대해 지속되고 있다.

10월 17일 카자흐 국립대에서 포스코 장학금수여식이 진행되었다. 본 행사에서 5명의 한국학과 재학생들이 장학금을 지원 받았다.

11월 28일, 카자흐 국립대에서 신한은행 장학금수여식이 진행되었다. 신한은행은 이미 수년째 한국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원해 오고 있다. 본 행사에서 총 6명의 한국학과 재학생들이 장학금을 지원 받았다.



최재형기념사업회 후원 경시대회

2016년 11월 27일, 서울 소재 최재형기념사업회 후원으로 카자흐국립대 한국학과에서 한국어 글짓기-말하기 경시대회가 개최되었다. 본 행사는 항일독립운동가 최재형의 숭고한 뜻을 알리고 경시대회를 통해 학생들의 한국어와 한국학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제고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최재형기념사업회는 매해 경시대회에 지원을 하고 있으며, 차후 장학금 지원도 약속하고 있다.



주알마티 총영사 특강

2016년 9월 22일 카자흐 국립대 한국학과에서 전승민 총영사(주알마티 총영사관)의 특강이 개최되었다. “카자흐스탄 - 유라시아의 중심”이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특강에서 전승민 총영사는 중앙아시아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참가한 학생 및 교원들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카자흐스탄

570 돌 한글날기념 한국학포럼

2016년 10월 7일(금)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한국학센터는 570 돌 한글날과 한국학센터 개원 4주년을 기념하여 한국학포럼을 개최하였다.

한국학 교원 및 학생 12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우시케노프 학장(동양학부)의 인사말과 이석운 부총영사(주알마티 총영사관)의 축사로 시작되었다. 한글날을 기념하여 동영상 “한국문화 최고의 창작품 한글”을 감상한 후, 한넬리 학과장(한국학과)의 발표가 이어졌다. “중앙아시아 한국학 발전을 위한 한국학센터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진행된 발표에서 한국학센터를 개설하여 지난 4년간 진행해온 한국학 사업의 성과를 소개하였다. 한국학센터는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해외 한국학 씨앗형사업을 진행하였으며, 2015년에는 중앙아시아에서 최초로 해외중핵대학사업에 선정되어 학술지와 뉴스레터를 발행하고, 학술대회와 경시대회를 개최하는 등 중앙아시아 한국학 진흥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발표가 끝난 후 최명규 법인장(신한은행 카자흐스탄법인)이 신한은행 장학증서(6명)를 전달하였고, 이석운 부총영사가 한국학센터 장학생(4명)에게 장학증서를 전달하였다. 이 외에도 한국국제교류재단 대학원 장학생(박사 1명, 석사 3명), 한국학중앙연구원 대학원 장학생(석사 6명), 한국학센터 R/A 장학생(4명)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전달하게 된다.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우수자 시상을 끝으로 막을 내린 이번 포럼을 통해 한국학센터가 카자흐스탄을 넘어 중앙아시아 한국학의 중심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행사 후 장소를 옮겨 2016-2017 한국-중앙아시아 오픈포럼 제 1차 발표회를 가졌다. 장호중 교수(KF 파견교수)는 “본교 대학원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중앙아시아 한국학의 발전을 위한 향후 사업 계획을 소개하였다. 한국학센터는 씨앗형사업의 성과를 기반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해외한국학 중핵대학 육성사업”에 선정되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연 1억 2천 2백만원씩 총 6억 1천만원의 지원을 받게 된다. 중핵대학 육성사업은 해외 대학 중 한국학의 역사가 깊고 기반이 탄탄한 대학을 지원하여 한국학의 핵심기관으로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회 CIS 대학(원)생 한국학학술대회

2016년 11월 26일(토)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한국학센터는 동양학캠퍼스(Tole bi 84)에서 제 2회 CIS 대학(원)생 한국학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학문후속세대 양성과 학술교류활성화를 통한 한국학 기반강화를 위해 기획된 이번 대회에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러시아, 한국 등 4개국 10개 대학에서 학생 및 관계자 약 8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한편, 한국학센터는 한국학의 열기를 이어가기 위해 올 11월부터 정기적인 학술대회로 정착시켜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